

# ‘레지던시’의 위기



홍경안  
의  
시  
사  
일  
과

레지던시(Residency)는 예술가들이 예술창작 공간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과 국내외 예술 교류, 전시, 학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작가들은 1년 안팎의 입주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의 조력과 작업실, 제작 비용, 설비, 시설 등을 지원받는다.

국내 최초의 레지던시는 1995년부터 개관한 광주광역시의 ‘팔각정스튜디오’다. 공원관리실을 개조해 사용했다. 2008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작스튜디오 정책이 본격 전개되면서 현재는 200여개의 공사립 레지던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레지던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의 금천예술공장,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아트플랫폼 등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서교예술실험센터와 신당창작아카데미, 부산문화재단의 흥타아트센터, 청주시립미술관의 청주미술창작스투

디오, 대전문화재단의 테미예술창작센터도 주목받는 레지던시에 속한다.

이중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를 통해 예술가의 존재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사회적 ‘공유’에 앞장서왔다. 15년 가까이 예술인 역량 강화, 국제 교류, 지역민 대상 예술 교육 등을 진행하며 낙후된 원도심을 새롭게 변모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천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창작 활동에 반영할 수 있었던 ‘리서치 투어’를 포함해, 문화예술 활동으로 평화도시로서 인천과 서해 5도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마련된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등은 플랫폼만의 색깔 있는 기획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인천시가 플랫폼의 주요 목적 사업인 레지던시 기능의 잠정 중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의 공론화 과정조차 없었고 대체할 공간 또한 마련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계는 사실상의 폐지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인천아트플랫폼 외에도 레지던시 기능을 중단하거나 시설 자체를 없애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민의 거점 공간이자 예술인 등용문으로 인정받아온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흐름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창작공간 생태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형국임엔 틀림없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던 대구 1호 레지던시인 ‘가창창작스튜디오’가 문을 닫았다. 2009년부터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흥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온 서교예술실험센터도 운영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는 2021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를 취소한 이후 운영을 멈춘 상태다.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역시 현 부지에 제2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지속성이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국내 주요 레지던시로 꼽히는 곳들마저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이에 미술계는 ‘정리’의 전 단계가 아닌지 우려한다.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K아트’ 바람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레지던시의 본질은 창작 진흥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꾸집으로, 주민의 문화적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사회적 창의성을 비롯한 미적 다양성 확대에도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만큼 레지던시의 의미와 가치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오랜 시간 한국 예술 창작의 기본 토대가 돼 왔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존립 여부의 ‘키’를 쥔 일부 정책 실행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레지던시를 다다익선식 성과주의가 결합된 행정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밀어낸 자리에 스타벅스 입점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인천시의 사례처럼 산업 영역에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 레지던시의 위기도 여기서 비롯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가치관을 지닌 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레지던시의 앞날은 밝지 않다. 아니, 건강한 문화예술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해결 방안은 결국 문화예술에 관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자체장을 잘 뽑는 것뿐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작금의 나라 꼬라서니 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투표의 중요성을. /미술평론가



## 스타벅스, ‘별다방 클래스’ 확대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하반기에도 고객 대상 스타벅스 커피세미나인 ‘별다방 클래스’를 확대 진행한다. 하반기 ‘별다방 클래스’는 진행 횟수 증가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 대비 진행 횟수를 2배 확대해 전국 166개점에서 332회의 ‘별다방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 SK증권, 임직원·시민과 헌혈 캠페인

SK증권이 임직원과 지역사회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 나눔 실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 마음혈액원에서 지원한 헌혈 버스가 SK증권 본사 앞에 상주해 임직원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증권



## KB증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KB증권은 지난 15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새들원에서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했다. /KB증권



## 르노코리아, 영업사원 누적판매 4000대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 영업사원 최초로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한 슈퍼리어가 탄생했다. 르노코리아는 자사 최초로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한 르노코리아 강서지점 원도희 슈퍼리어에 대한 축하 기념식을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자동차

## LG화학 임직원, 아이들 진로교육 진행

봉사단 ‘일일선생님’으로 방문 20대 신입사원부터 50대 임원까지

LG화학 임직원들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일 선생님이 되었다.

LG화학은 11월 한 달간 ‘그린클래스 임직원 봉사단’의 교육 재능기부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클래스는 LG화학의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초등학교·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ESG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자료를 만들어 전달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다면, 올해는 그린클래스 처음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기관에 찾아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그린클래스 강사진은 사내 교육을 이수한 입사한 지 1년된 20대 신입 사원부터 50대 임원, 사내 변호사까지 총 32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됐다.

임직원 그린클래스는 11월 중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방문해 200

여 명의 초등학교생에게 진로와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진로 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임직원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설명하며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경험을 한 강사로 채워진 만큼, 아이들은 강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진로 상담을 받게 된다.

강재철 지속가능담당은 “미래세대가 마주해야 할 고민에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포함해 진로와 꿈에 대한 걱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더 넓혀가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LG화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유방암 예방”

이대목동병원 안정신 교수 연구 성과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유방암 진단과 예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안정신 교수(사진)는 올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방암의 진단, 치료, 예후, 다른 암 또는 질환과의 연관성, 예방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27일 ‘유방암 환자의 이차



원발암 발생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유럽종양외과학회 우수 포스터 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유방암에서 지방간과 마이크로바이옴 관계 규명 연구 성과’ 9월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구연상 ▲‘갑상선암, 유방암,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규명’ 4월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 등을 수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생명연-IBS, 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두 기관 보유 인적·물적 자원 협력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손을 잡는다.

생명연과 IBS는 16일 생명연 대전 본원에서 연구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활성화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는 무병장수 시대를 열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의 기초연구 성과가 신약으로 개발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수십조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소요되며, 성공률 또한 매우 낮아 기초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왼쪽)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16일 생명연 대전 본원에서 연구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와 상용화로 연결해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표 기초연구기관인 IBS와 국가바이오 인프라와 신약 개발 중개연구에 강점을 보유한 생명연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7일 (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13 | 해질 / 17:20

연천 -4/3  
동두천 -2/3  
가평 -3/4  
파주 -3/3  
서울 -1/3  
양평 -2/4  
인천 1/3  
수원 0/4  
용인 0/4  
평택 -3/5

백령도 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